

고마나루 소리통



독자들의 글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합니다.
 · Tel : 041-850-8758 · Fax : 041-850-8926
 · Mail : news@kongju.ac.kr

2006학생자치기구 부정선거 그 모든 것이 학생에 대한 기만이다

선거는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막강하게 행사 할 수 있는 축제의 날과도 같다.
 그러나 '절음과 전통의 대학'이라는 2006년 공주대학교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는 선거조차 부정으로 얼룩졌다. 한 학생의 투서로 불거진 2006년 학생자치기구 부정선거는 사건발생부터 조사 결과 발표까지 문제투성이다.

조사위원회는 학생 2인이 참가했다고 한다. 그들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학생 대표라는 권한은 누가 부여했는가. 학생자치기구에 아무런 권한 없는 학교가 부여한 것인가?
 더불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에 침해를 가했다. 학생들이 대표권조차 부여받지 않는 조사위원회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더니 조사과정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 밀실과도 같은

않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알려 혼란을 일게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결백과 주장은 공주대뉴스에서 부정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는 몇 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기만은 학생이다. 역할과 권한도 학생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생인 우리에게 한쪽의 입장이라도 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주성이 침해받고 무시당하는데 분노하고 입을 모아 이야기해야 한다. 더불어 실천이 필요하다면 무시당한 어제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한다.

우선 선거가 끝나고 바로 해제되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조사권을 맡았다. 중선관위의 업무태만으로 자행된 부정선거, 그 조사권한은 누구로부터의 위임인가? 또한 공과대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중선관위는 조사권을 가질 수 없다. 학생으로 이루어진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이 꾸려져 활동해야 한다.
 선관위의 오류도 있으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의 개입이다.
 학교는 조사과정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각 단과대 학생회가 새터가 끝나 정선없는 시기에 맞춰 바로 당선유보해지를 통보했다.
 학생자치기구는 분명히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권한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있다. 위임 과정이 중선관위의 위임으로 이루어졌지만, 권한 자체가 없는 중선관위의 위임을 받고 학생의 권리에 침해를 가한 학교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행동으로 우리의 알 권리조차 뭉개버렸다. 이미 비대위에서 몇차례 조사위원회와 조사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한다. 무조건 안된다로만 일관한 학교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게도 민주라는 말이 우스웠을까?
 학교의 주체인 학생이 그리도 쉽게 보이는 것일까? 그렇기는 하겠다. 총학생회가 직권정지되어있는 방학에 등록금 협상은 진행되었고 학교에서 생각한대로 등록금 인상수치는 실로 대단했다. 학생들은 '큰 반항' 없이 등록금 잘 내고 있으니, 쉽게 보일만도 하겠다.
 그러나 더 이상 학생회라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힘마저 무시당할 수는 없다. 학생회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의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의 너무나도 당연한 주체인 학생을 더 이상 시기면 시키는대로 하는 바보로 알지 말아야 한다.
 한우리 총학생회 당선자들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그들의 공약 중에는 가장 중요한 등록금 동결이 있다. 진실로 학우를 위해 등록금 인상을 반대했다면 직권정지든 무엇이든간에 학생 개인으로라도 등록금 협상자리에 함께하고 등록금 동결을 위해 머리 싸매던 비대위의 고민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에 연루되었든 아니든 1년을 학우를 위해 살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고 당선되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학우를 위한 일을 찾고 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는 부정선거 자체로 무효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공과대 당선자 당선 취소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주성이 침해받고 무시당하는데 분노하고 입을 모아 이야기해야 한다. 더불어 실천이 필요하다면 무시당한 어제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한다.
 부끄럽고 부끄러운 이번 일을 소리없이 넘긴다면 '부정선거 있고, 학교에서 비민주적으로 간섭했는데도 아무일 없었다'로 후대에 이야기 될 것이다.
 바로 잡자.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몫이다.
 김효진(특수교육 04) 사범대 건설준비위원장

총장선거를 마치고

지난 2월 22일은 우리대학을 앞으로 4년동안 이끌어갈 총장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총장후보자로 출마하신 4분의 교수 모두가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자질과 경륜과 능력으로 보아 총장후보자로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분들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갈 수 있었다.
 더욱이 이번선거는 우리대학 직원들이 처음으로 총장선거에 참여하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260명 직원을 대표하는 직원회장 입장에서 남다른 기쁨과 감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을 신뢰하는 마음속에서도 직원들의 선거 참여율은 얼마나 될까?' 또한 '어느 특정후보에게 직원들의 표가 몰려 교수들의 의사가 의미 없는 투표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염려가 앞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의 총장선거 참여 열기를 보면서 우리대학 직원들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고, 대학의 3주체의 하나로서 정당함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 부끄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대학은 직원들의 총장선거 참여에 있어 직원회와 교수회의의 협상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전도 받았지만, 교수나 직원들이 서로 이해함으로

써 전국대학에서 유일하게 불미스러운 마찰 없이 협상을 타결하게 되었다.
 이날 직원들의 선거참여율은 천안 및 예산배움터 직원을 포함하여 96%를 넘었으며, 후보별 지지율도 1차, 2차, 3차 결선투표까지 교수들과 대등한 지지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수들과 직원들이 한가지로 마음을 합한 결과이며, 공주대학교 전 구성원들이 전통과 신뢰 속에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제5대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출된 김재현 교수에게 축하를 드리며, 끝까지 선전했지만 낙선된 분들에게도 격려를 드리고 싶다. 모두가 공주대학교를 사랑하는 한마음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 선출된 총장을 중심으로 대학의 전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우리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박용백 위원회장

2006년 2월 20일, 드디어 우리 과 친구들과를 비롯하여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 공주대학교 친구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날이 왔다.
 솔직히 새터라 하면,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다. 물론 나도 기대를 가지고 새터를 왔다. 새로운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고, 앞으로 같이 대학생활을 할 친구들과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는 자리니까 말이다.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내가 배정받았던 방에도 첫째 날부터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나마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술! 이었다. 술을 한잔 두잔 씩 받아먹으면서 서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
 술의 힘이 이만큼 대단한건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말 한마디도 안하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술', 참 대단한거 같다.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다녀와서

일단 우리들은 모여서 가볍게 여러 사항들을 점검하고 새터 일정이 진행되는 곳으로 향했다.
 내가 새터를 오기 전 아는 형들에게 들은 말로는 '새터 가면 진짜 술만 먹다가 온다'는 것'이었다. 우리학교보다 새터 일정이 빨라서 새터를 다녀온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진짜 술만 먹다가 온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는 어땠을까? 우리 학교도 역시 술을 많이 먹은 거 같다. 하지만! 결코 선배님들이 무조건 강요하고 억지로 마신 건 아니다. 그냥 서로를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도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서도 마시고 이런 식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새터 때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지 이유도 알 것 같았다. 일단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새로운 친구들과를 처음 본 자리인 만큼 굉장히

일단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하고 싶다. 여러 일정을 매끄럽게 진행해주신 것부터 해서 처음 본 친구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것까지 말이다.
 이번 새터 덕분에 친구들과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 선배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중(건설환경 06) 학우

맛있는 밥상

| 식단 | 요일 | 3/6 월 | 3/7 화 | 3/8 수 | 3/9 목 | 3/10 금 | 3/11 토 |
|------|----|--|--|--|--|--|---|
| 신관용통 | | 김치콩나물국 시금치고추장무침 아재오명조림 탕수육 깍두기 요구르트 | 북어달걀국 병어양념조림 모듬샐러드 배추김치 요구르트 | 육개장 김치찌개 콩나물무침 미역회 깍두기/배추김치 | 바지락부추탕 돈육고추장볶음 등태찜 김구이 배추김치 요구르트 | 두부된장찌개 공치무조림 오징어링튀김 참나물무침 배추김치 | |
| 예산 | | 흰밥 생선매운탕 돈육볶음 상추쌈 시금치무침 방울토마토 배추김치 | 김치볶음밥 조랭이떡볶이 집게다리튀김 감자샐러드 요구르트 총각김치 | 흰밥 순두부찌개 돈육갈비찜 뚝나물곤약무침 수정과 배추김치 | 오징어달걀 무채국 고로케 어묵조림 꿀떡 깍두기 | 흰밥 국수국 치킨까스 가자미무조림 달래오이초무침 배추김치 | 참치회달걀 유부장국 고구마튀김 단무지&락교 깍두기 |
| 천안 | | 떡국백반 닭양념조림 어묵볶음 비빔나물 김치 요구르트 | 청국장찌개 갈치조림 두부양념장구이 노리리호박볶음 알타리김치 요구르트 | 설렁탕 소시지떡강정 고추장떡 깍두기 생야채 요구르트 | 근대원장국 고등어김치조림 고구마채튀김 표고버섯현 깍두기 사과 | 울갱이해장국 돈육불고기 깻잎찜 김치 깍두기 요구르트 | |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3월 6일(월) ~ 3월 11일(토) 점심 기준 식단입니다.



우금티 사랑방

- ❖ 학과·동아리 소식
 - 인사대 158 까무잡잡 아저씨 등 장 보면 알듯~
 - Group Sound 가시나무에서 06멤버구해요~!!
 - 환경교육과 06학번 이번에 물이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 "호선아~ 생일 축하해"
 - 사랑으로 함께하는 ♥ 디딤돌에서 06학번 24기를 모집해요..
 - 터잡이로 오세요~
 - 06 정보통신공학부 파이데이팅!
 - 전과공학 05학번 그레이트 파이팅!!!!!!
- ❖ 축하해요
 - 인사대 경영학과 키157cm 나이 41세 편입생 음 축하
 - 총학생회 없이 이번 새터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여러분들 수고 했어요~
- ❖ 이 말만은 꼭
 - 중앙도서관에서 자리에 책을 놓고 가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만 사물함도 없는데 비닐가방에 책을 넣고 다니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것은 진짜 우리입니다.
 - 꼬부라 개강이다(---)
 -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리를 떠날 때는 반드시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 디딤돌 23대 집행부 파이팅!!!
 - 아- 불쌍한 신문사 학우
 - 아- 불쌍한 신문사 학우
 - 공주대 화이팅! 생상과 화이팅! ♥
- ❖ 성별 : 남자, 011-9417-0511 외로워요
- JY 그걸 좀 그만 봐
- 미란언니 생일 축하해요~☆
- 대호 군대 잘갔다 오시게
- 수영 아싸리 파이팅
- '꿈을 씹읍시다'
- 군 생활 열심히..
- '은진아 힘내자'
- RE, 더 힘쓰면 어떨라?
- 나는 공주대의 닥스호르다.
- 드디어대학생활시작!!! 모두들 잘 부탁해요~ 같이 대학생활 즐겨요~
- 심소재 김모군! 거기까지도 우리우정 변치 않는거 알지?
- 동영이형 힘들면 쉬어요..
- 2식당 오픈했네?
- 학교에 새비기항기가 난다.
- 알팜 패밀리 화이팅
- 06학번 간호학과 새비기를 앞으로 잘지내보자구.. 간호학과 파이팅!!
- 공주대06학번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 공주대 화이팅! 생상과 화이팅! ♥

